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단 출범식

2018.12.7.(금) 15:40

祝 辭

2018. 12. 7.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서울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7개 지역 신용서포터즈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부담과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는 현안처리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신 여러분들께
또하나의 업무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신용서포터즈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님들과
통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정부와 국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과 사명감을 기대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 비해
복지의 발달이 미흡했기 때문에,
포용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접점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서포터즈 출범의 의의>

정부는 작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소득과 재산이 없어 10년 이상 갚지 못한 분들의
채무를 면제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혹시나 갚지 않을까 해서 보유해 왔던 채권을 없앴으로써,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과 추심의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쪽에서 파악한 분들께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현재까지 약 8만7천명이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신용서포터즈의 역할>

여러분들도 어딘가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연쇄적으로 아프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 주거, 건강, 소득, 보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고,
금융애로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활하다가 필요에 따라 빚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실직을 해서
빚을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빚독촉이 거세질수록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누구를 만나는 것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메시지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홍보의 방법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장기소액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일 것입니다.

주위에 채무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해 주시고
신청방법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최근 들어 각 지자체, 정부부처별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고 평소 복지분야에 관심이 큰 저도
정부 내 회의 등을 통해
몰랐던 정책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부 복지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이웃인 취약계층이 하나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금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이외에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처음 빚을 질 때는
본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가 시작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추심의 압박이
평범했던 우리 이웃의 일상을 순식간에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우리 이웃의 파괴된 일상에 다시금 행복을 찾아주는
보람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커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